

보도시점 2024. 4. 3.(수) 14:00 배포 2024. 4. 3.(수) 13: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으로 민간·정부 경제외교 활동 전방위 지원

- 순방 계기 논의된 민간 MOU·계약, 첨단기술 협력 등 지원방안 논의 -
- 김병환 차관 “순방으로 넓힌 경제 운동장, 스타플레이어 양성으로 뒷받침”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월 3일(수) 14:00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경제외교 협력 플랫폼인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24년 1월 출범, 이하 이행점검단) 2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9개 부처와 4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후속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여기관) 기재·교육·과기·외교·농식품·산업·국토·해수·여가부, 수은·무보·코트라·무역협회

이날 이행점검단에서는 현재까지 순방 계기로 추진된 민간분야 MOU와 계약 진행사항을 확인했으며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애로사항과 다양한 건의내용도 공유하였다.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하고 현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서 후속조치 추진에 애로가 확인되었으며 재정·수출·금융 및 전문가 자문 등의 분야에서 지원 수요가 있었다. 이에 점검단은 향후 애로해소 전담창구를 마련하여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해소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경제 후방연쇄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강도 높은 밀착 지원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속도감 있게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이행점검단은 경제외교 후속조치와 관련된 예산사업의 관리·운영 방안도 논의하였다.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우리 경제·산업에 활력을 제고할 사업은 적극 발굴하여 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특히 순방계기로 마련된 우호적인 대외여건에 힘입어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 분야 공동 연구와 같이 우리경제 역동성을 제고할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치밀하고 꼼꼼하게 설계·추진하기로 하였다.

김병환 차관은 미중 패권경쟁 가속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급변하는 지정학 리스크 등 녹록치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원팀 코리아 활약으로 글로벌 경제 운동장이 넓어졌다면서, 이 모멘텀을 이어 정부와 기관이 합심하여 첨단기술·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스타플레이어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후속조치 이행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재완	(044-215-7610)
		담당자	사무관	하정현	(bono00@korea.kr)
	기획재정부 경제외교이행점검팀	책임자	팀 장	변성만	(044-215-7625)
		담당자	사무관	송재열	(jimjak55@korea.kr)